

‘희망 대장정’ 광주 찾은 민주 손학규 대표 단독 인터뷰

“국민소득 2만불 10년…대세는 복지”

인터뷰=정후식 정치부장

로 광주를 찾았다.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장외투쟁’에 이어 새해 초 시작된 ‘희망 대장정’까지 하루 4시간 안팎인 수면시간까지 아껴가며 연일 계속된 강행군에도 손 대표는 시종일관 웃음과 활기를 잃지 않았다. 손 대표는 대장정을 통해 만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복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의 시대정신을 ‘정의’와 ‘복지’로 규정했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특권을 없애는 ‘창’이고, ‘복지’는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막아내는 ‘방패’라고 표현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는 2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에서 진행된 ‘사랑방좌담회’가 끝난 뒤 밤 10시 40분부터 1시간40분동안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 하는 100일간의 희망 대장정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느낀 바와 민심은 어떤가.”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많이 돌아선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심이 확실하게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신뢰 높이는건 수권정당의 역할”

“국민이 호소하는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인가.”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질문과 건의 50%가 복지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30%는 지역발전 문제, 20%는 정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요구였다.

“복지문제에 정치권의 책임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손 대표가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맞은지 10년이 흘렀다. 사회안전망 구조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복지수준을 높이고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게 보편적 복지다. 건설공사보다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낮고 보수층의 공격도 거세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1999년부터 준비해왔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인물이 충분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과 추구했던 정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의와 복지다.

이명박 정부의 반 서민정책에 대한 본질이 드러났다.

“더 낮게 더 가까이”를 모토로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대표가 지난 21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장외투쟁’에 이어 새해 초 시작된 ‘희망 대장정’까지 하루 4시간 안팎인 수면시간까지 아껴가며 연일 계속된 강행군에도 손 대표는 시종일관 웃음과 활기를 잃지 않았다. 손 대표는 대장정을 통해 만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복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의 시대정신을 ‘정의’와 ‘복지’로 규정했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특권을 없애는 ‘창’이고, ‘복지’는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막아내는 ‘방패’라고 표현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특권과 반칙, 차별, 부정이 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와 복지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정책이다. 무상교육, 일자리, 주거복지 등 많은 복지정책을 더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의와 사회, 민주와 평화가 확실하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대표 취임 100일이 넘었다. 취임 이후를 지평한다면.”

▲장외투쟁 등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오로지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만 생각해보고 달려왔다. 동시에 야당다운 야성(野性)을 찾은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한 성과는 얻었다. 장외투쟁 등으로 야성을 되찾았고, 야권연대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했다. 이명박 집권 초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지만,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렇지만, 4대 강 사업·날치기 예산 통과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본다.

“비람직한 야권연대 방향은.”

▲정치적 연대를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 반대 투쟁 등이다. 민주당 4대강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야권과의 연대를 통한 장외집회를 위해 많은 물밑작업을 하면서 연대의 틀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별 연대활동이 모이고, 운동이 이어질 때 야권연대 인식의 공감대 폭이 넓어지면서 정치적 상충부조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동 집회 등을 통해 야당 상설기구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다.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1차 민주당 대장정을 통해 국민에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확실한 야당 역할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차츰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의 응집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응집과 지지를 결집하고 확산하면 국민이 야당을 믿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수권정당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대권 후보들은 대선 후보에 시동을 걸었다. 언제쯤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인가.”

▲당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당분간 대권보다는 당 대표 역할에 충실



할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지지율이 높게 대세 지역민들이 호남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호남의 열정과 여망 현실화 하겠다”

▲호남의 정치수준이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호남이 정치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순화규를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화규를 통해 가능성을 보자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호남의 열정과 여망을 제대로 현실화시키는 게 내 과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민주당과 광주시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원칙과 신의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 중시를 없앨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대안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원안통과되자 정부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또 깨거나 뒤흔들면 원칙과 신의가 무너진다. 광주시민과 광주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당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정권교체 힘의 원천이다. 당장 과학벨트가 커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광주·전남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충청권을 크게 안아줬으면 한다.

/정리=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F1 매니지먼트 회장-카보 새대표 만난다

조직개편 관련 FOM측 입장 등 거론될 듯

F1(포뮬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KAVO (Korea Auto Valley Operation·카보)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상황에서 F1을 주관하는 FOM(Fomula One Management·포뮬러원 매니지먼트)의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과 신임 박원화 카보 대표가 조만간 만나기로 해 어떤 논의가 오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원화 신임 카보대표는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버니 회장에게 전화로 대회 운영법인 대표이사 교체 사실을 알리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신임 카보대표는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버니 회장에게 전화로 대회 운영법인 대표이사 교체 사실을 알리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신임 카보대표는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버니 회장에게 전화로 대회 운영법인 대표이사 교체 사실을 알리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버니 회장은 버니 회장의 일정을 고려하면 박 대표가 조만간 영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게 유력하다는 게 카보 안팎의 분석이다.

회동 내용과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정영조 전 카보 대표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된 만큼 한국 F1대회 유치를 성사시킨 MBH(엠브릿지홀딩스·공동대표 정영조, 장홍호)와 FOM, 카보와 FOM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정 전 대표 해임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카보 안팎에서는 F1 대회 개최권을 가진 카보 대표 및 카보 주주 변동 등에 대해서는 FOM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여서 신임 박 대표와 버니 회장 간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난달과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버니 회장에게 KAVO 조직개편과 관련된 서신을 보냈고 이에 대한 버니 회장 답변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져 KAVO 조직개편에 대한 FOM측의 입장이 조만간 공식화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한국 F1대회를 치르는데 지불해야 할 TV 중계권료 등의 현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창업농업경영인 도전하세요”

240명에 최대 2억까지 지원

전남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창업농업경영인 24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사업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주소지 관할 시·군청(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시군농정심의회와 농업인재개발원 평가를 통해 전남도에서 최종 선발한다.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연리 3% 3년 거주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지 구입과 축사 신축 등 영농창업,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해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젊은 인력들의 영농참여를 위해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평가시 가산점수를 부여하고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등에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순선 농업정책과장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모두 20만8155명에게 4376억원을 융자로 지원해왔다”며 “창업농들이 고소득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공동체일자리 근로자 1700명 모집

전남도는 저소득층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2011년 제1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1700명을 모집한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차로 3월부터 6월까지, 2차는 8월부터 11월까지 나눠 시행된다.

모집기간은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신청서 등을 관할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참가자들은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폐자원 재활용 ▲마을기업 육성 ▲취약계층 집수리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임금은 8시간 근로기준으로 1일 3만5000원이며, 1월 14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일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이런분께 권합니다!

- ✓ 오십견
- ✓ 엘 보
- ✓ 관절염
- ✓ 디스크
- ✓ 여드름
- ✓ 간질·우울증
- ✓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 ✓ 방문하는 고객님께 감기는 무료관리(1시간 후 추측 호파)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를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거나 다들 필요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마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분/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된수익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roben care 상무점

TEL.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처평동 1177-3 라인대주 APT 정문앞 2층201호 (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만원

대산프리모가발